

# 민간단체들보다 중국정부정책 소극적

한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 방문차인 김경신 구세군 HIV/AIDS 예방사업단 사무장(가운데)은 2002년 1월 15일부터 23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였다. 이번 방문의 목적은 한·중 HIV/AIDS 관련 사업 교류를 위한 것이었다. 이번 방문에는 국립보건원방역과, 구세군 HIV/AIDS 예방사업단, 한국에이즈퇴치연맹, UNDP 한국사무소에서 각각 HIV/AIDS 사업 담당자가 동행하였다.



**김경신**  
구세군 HIV/AIDS 예방  
사업단 사무장

2002년 1월 15일에서 23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였다. 이번 방문의 목적은 한·중 HIV/AIDS 관련 사업 교류를 위한 것이었다. 이번 방문에는 국립보건원방역과, 구세군 HIV/AIDS 예방사업단, 한국에이즈퇴치연맹, UNDP 한국사무소에서 각각 HIV/AIDS 사업 담당자가 동행하였다.

중국의 방문 도시는 15일~18일 북경, 18일~21일 운남성의 곤명, 21일~23일 홍콩의 HIV/AIDS 관련 정부기관, NGO, HIV/AIDS 전문병원 및 UNAIDS, UNDP 북경 사무소를 각각 방문하였다. 각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현재 중국의 에이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낄 수 있었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중국 정부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.

## 인식부족과 과잉인구가 AIDS 관리 어렵게 해

중국에서 첫 HIV/AIDS 감염인을 발견한 것은 1985년이고 2002년 12월 말 HIV/AIDS 감염인 수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. 이렇게 빠르게 HIV/AIDS 감염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HIV/AIDS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여졌다.

이러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

정부 및 국민들이 에이즈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과 워낙 넓은 땅과 많은 인구조로 인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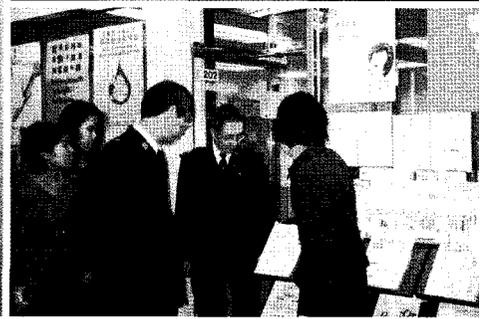
세계의 관심이 아시아의 에이즈 감염인의 증가, 특히 중국에 집중되면서 조금씩 에이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한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집중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았다.

우리나라의 HIV/AIDS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것과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 및 관련 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중국의 관계자들은 매우 놀라고 있었고, 우리나라의 사업을 모델로 삼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정책 개발과 민간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.

## 에이즈전문병원, 전문도서관 등 운영

아직까지 중국의 HIV/AIDS에 관한 사업이 우리나라에 비해 많은 부분들이 미흡했지만 중국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었다.

첫 번째로,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중국 민간단체들간의 협력을 통한 HIV/AIDS 관련 활동들은 매우 활발하였다.



HIV/AIDS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아니더라도 즉 청소년연합회, 청년연합회, 여성연합회, 노인연합회... 등등 많은 민간단체들이 HIV/AIDS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.

아울러 HIV/AIDS예방활동이 아닌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HIV/AIDS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.

두 번째로, 우리나라 감염인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HIV/AIDS 전문병원이 없이 HIV/AIDS 감염인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지만 병실이 부족하여 응급실에 몇 주 동안 대기하고 있을 때가 많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.

치료시간이 지연되다보니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운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는데 중국의 경우는 800개의 병상을 갖춘 에이즈전문병원(you an hospital)을 방문한 뒤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.

시설이 쾌적하고 깨끗하여 환자들의 안정을 갖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듯 하였다. HIV/AIDS 감염인들을 자주 만나 그들의 고통을 듣는 나로서는 우리나라에도 그들만을 위한 전문병원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다.

세 번째로, 우리나라와 같은 해에 HIV/AIDS 감염인이 발견되었고, 이때부터 HIV/AIDS사업이 시작되었다. 이

러한 HIV/AIDS사업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HIV/AIDS에 관련된 모든 정보, 자료, 서적, 홍보용 책자, 포스터 등등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콩의 HIV/AIDS도서관(Red Ribbon Centre)에 비치되어 있었다. 중국의 HIV/AIDS 관련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에이즈관련 정보들 또한 상당부분을 갖추고 있는 전문 도서관이었다.

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하면 HIV/AIDS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나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매우 높고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며 정책보안, 정책개정 및 발생하는 문제에 맞는 새로운 정책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.

중국 방문을 교훈으로 삼아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더욱 발전적인 HIV/AIDS사업을 위해서 첫째, HIV/AIDS예방, 홍보활동에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지금까 지보다 더 적극적인 네트워킹의 필요성이 대두되며, 두 번째로 증가되는 HIV/AIDS 감염인 및 환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하루빨리 HIV/AIDS전문병원의 설립이 필요하고, 세 번째로, HIV/AIDS의 이해와 오늘, 그리고 내일을 볼 수 있는 전시관 및 도서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았다.

HIV/AIDS사업이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한 선진국을 방문하고 왔더라면 앞으로 HIV/AIDS사업을 하는데 더 많은 부분들에 도움이 되었을 텐데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는 중국 방문이었다.